TV 1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스페셜 30 생방송 세상의 아침 1~2부	6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50 인간극장		7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멈출 수 없어〉	15 KBC 뉴스지금 4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25 아침마당	00 KBS 8 아침 뉴스타임	8	30 특집다큐 아시아 문화기행	40 아침연속극 〈녹색마차〉
30 KBS 뉴스	00 아침드라마 〈장화홍련〉 30 여유만만	9	30 기분 좋은 날	20 좋은 아침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행복한 세상 55 여성공감	40 지구촌 뉴스	10	45 MBC 뉴스	40 SBS 뉴스
55 바른 말 고운말	00 여름방학 특선 앙코르 〈꽃보다 남자〉(재)	11	00 여름특선드라마 〈탐나는도다〉(재)	00 건강클리닉
00 KBS 뉴스 12	10 2009 베를린 세계육상 선수권대회 중계석	12	00 MBC 뉴스와 경제 40 늘 푸른 인생 스페셜	00 뉴스와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00 KBS 걸작선 〈내사랑 금지옥엽〉(재)		1	30 공감 특별한 세상 열전 해외 스페셜	00 KBC 보도특집 고흥! 우주항공 수도를 꿈꾼다 50 TV 백과사전
00 KBS 뉴스 10 KBS 중계석 〈아름다운 우리노래〉	10 KBS 네트워크 - 부산	2	15 TV특강 베스트	00 SBS 뉴스특보 한국 최초 우주 발사체 나로호 발사
30 풍경이 있는 풍경	00 수목드라마 〈파트너〉	3	10 키즈 사이언스	
00 KBS 오늘의 경제 10 사랑의 가족 35 TV유치원 파니파니	10 꼬꼬마 꿈동산(재) 40 롤링 스타즈	4	00 뽀뽀뽀 아이조아 30 은하의 일기	
00 KBS 뉴스 5 15 여름특선 BBC 다큐 〈아마존〉 40 남도지오그래피	10 2TV 하이라이트 스펀지 2.0(재)	5	00 MBC 뉴스 20 요리보고 세계보고 베스트 35 생방송 전국시대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세계의 축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10 리빙쇼 당신의 여섯시	6	30 MBC 뉴스 50 남도에 살고 싶네	25 생방송 KBC 투데이
00 KBS 뉴스네트워크 30 산 너머 남촌에는	10 무한지대	7	45 일일시트콤 〈태희 혜교 지현이〉	05 시사터치 따따부따 15 일일드라마 〈두아내〉
25 일일연속극 〈다함께 차차차〉	00 KBS 8 뉴스타임 20 KBS 8 뉴스타임 - 광주·전남 30 30분 다큐	8	15 일일 연속극 〈밥 줘〉	00 특집 SBS 8 뉴스 25 KBC 8 뉴스 50 한밤의 TV연예
00 KBS 뉴스 9	00 비타민 55 수목드라마 〈아가씨를 부탁해〉	9	00 MBC 뉴스데스크 50 MBC 스포츠 뉴스 55 납량특집 미니시리즈 〈혼〉	55 SBS 대기획 〈태양을 삼켜라〉
00 환경스페셜 50 느티나무		10		
00 KBS 뉴스라인 30 수요기획	15 소비자 고발	11	05 황금어장	15 테마스페셜
15 KBS 뉴스 25 스포츠 스포츠 35 2009 베를린 세계육상선수권 하이라이트	15 생방송 시사 360 45 생로병사의 비밀	12	20 MBC 뉴스 24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음악여행 라라라	10 나이트 라인 35 TV특강 행복플러스

EBS

06:00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초급)
06:30 세계테마기행 〈아시아의 보물섬, 타이완〉
07:10 샘샘은 꼬마 슈퍼맨
07:25 내 친구 티거와 푸
07:50 칙칙폭폭 처깅턴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그림 그려줘, 루이
08:30 도와줘요, 코알라 형제
08:40 천사랑
09:00 변신 로봇 5
09:15 방귀대장 뿡뿡이
09:30 안아줘요 무무
09:35 아무아무 참참
09:45 미라벨의 동물극장
10:00 60분-부모
11:00 최고의 요리비결
11:30 다큐 프라임 〈한국 신화를 찾아서〉
12:20 시네마천국
13:10 극한 직업 〈비탈면 녹화〉
13:40 문학사랑
13:45 초등 2년 여름방학생활
14:05 초등 4년 여름방학생활
14:25 초등 6년 여름방학생활
14:45 비키와 조니
14:55 아무아무 참참(재)
15:05 방귀대장 뿡뿡이(재)
15:20 알록달록 콩콩이 〈소금밭에 갔어요〉
15:35 천사랑(재)
15:55 딩동댕 유치원(재)
16:15 변신로봇 5(재)
16:30 안아줘요 무무(재)
16:35 칙칙폭폭 처깅턴(재)
16:45 빨강머리 앤
17:10 내 친구 토토
17:35 달려라! 닥터 멍
17:50 〈생방송〉톡! 톡! 보니하니
18:50 비키와 조니
19:00 스톰 호크
19:25 개구리 왕눈이
19:50 리얼리티 쇼 유아독존
20:20 TV로 보는 원작동화
20:50 세계테마기행 〈텐산 너머의 낙원 키르키스스탄〉
21:30 〈생방송〉 EBS 뉴스
21:45 지식채널 e
21:50 다큐프라임 〈Kocca 공동제작 - 인도네시아〉
22:40 극한 직업
23:10 다큐 10 + 특집
00:00 지식채널 e
00:05 EBS CEO 특강
00:55 문학사랑

EBS플러스1

07:00 EBS 포스 〈수학Ⅱ〉
07:50 EBS 기본과 특별한 〈수학(상)〉
08:40 〃 〈수학(하)〉
09:30 EBS 학습자료실 클릭! 사이언스
09:35 TV로 보는 박물관
09:40 EBS 수능 대비 고2 특강 〈수리영역〉
10:3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내신6감 〈수학(상)〉
12:50 〃 〈수학(하)〉
13:40 EBS 기본과 특별한(재) 〈수학(상)〉
14:30 〃 〈수학(하)〉
15:20 EBS 탐스런(재) 〈사회문화〉
16:10 〃 〈생물Ⅰ〉
17:00 EBS 수능특강 선택-고3(재) 〈사회문화〉
17:50 EBS 학습자료실 〈과학사〉
18:00 EBS 포스(재) 〈현대문학〉
19:00 〃 〈수학Ⅱ〉
20:00 EBS 수능특강 선택-고3(재) 〈생물Ⅰ〉
21:00 〃 〈한문〉
21:50 EBS 수능플러스(재) 〈수리영역〉
23:00 EBS 수능특강-고3(재) 〈외국어영역〉
23:55 EBS 학습자료실 〈세계사〉

EBS플러스2

08:00 EBS TV 중1(2학기) 〈영어〉
08:40 〃 〈도덕〉
09:20 EBS TV 중3 (2학기) 〈기술가정〉
10:00 생활속의 보건
10:15 딩동댕 유치원
10:35 알록달록 콩콩이
10:50 레이의 우주대모험
11:00 일일드라마 〈깡순이〉
12:00 EBS TV 중2(2학기) 〈영어〉
12:40 〃 〈한문〉
13:20 〃 〈기술가정〉
14:00 중학영어독해 level 1
14:40 방과후 영어 통합 level 2
16:30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초급)
17:00 초등 2년 여름방학생활
17:20 초등 4년 여름방학생활
17:40 초등 6년 여름방학생활
19:00 EBS TV 중1(2학기) 〈영어〉
19:40 〃 〈도덕〉
20:20 EBS TV 중3 (2학기) 〈도덕〉
21:00 EBS TV 중2(2학기) 〈영어〉(재)
21:40 〃 〈한문〉(재)
22:20 EBS TV 중2 (2학기) 〈기술가정〉(재)
23:00 EBS TV 중3 (2학기) 〈영어〉(재)
23:40 〃 〈한문〉(재)

DJ 서거…라디오 '3김퀴즈' 중단

MBC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 애도…추후 폐지 논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라 MBC 표준FM(95.9㎒)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에서 매일 방송되던 인기 코너 '3김 퀴즈'가 18일부터 당분간 중단된다.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의 주승규 PD는 "애도의 뜻에 따라 오늘부터 당분간 코너를 중단할 것"이라며 "그 이후 코너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3김 퀴즈'는 앞서 김 전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한 시점부터 김 전 대통령의 성대모사는 중단한 채 코너를 꾸려왔다. 주 PD는 "아무리 모사라고 해도 현실의 캐릭터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 전 대통령이 입원해 계시는 동안에는 극 중에서도 입원하신 것으로 설정해 제외했다"고 말했다. 2002년 4월부터 시작된 3김 퀴즈는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 거물 정치인 3명의 목소리를 진행자 최양락과 개그맨 배칠수가 성대모사로 연기하는 코너다. 코너는 3김이 옥신각신 연방 실수를 저지르며 시사 문제를 푸는 풍자 프로그램이다.

'3김 퀴즈'의 배칠수(왼쪽)와 최양락.

매일 5분 동안 진행되는 이 코너는 지난달 15일 게시글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선 처음으로 300만 건을 돌파하는 등 높은 인기를 끌어왔다.

애청자들은 게시판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님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꼭 들려 주세요", "김대중 전 대통령도 '삼김퀴즈'도 제 마음속에 간직한 채 추억해야겠다" 등 아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플루 대폭발' 오는가?

SBS 뉴스추적 오늘 방영

지난 주말 사이 국내에서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두명 등장하자 SBS TV '뉴스추적'이 19일 오후 11시15분 '신종플루 대폭발 오는가?'를 방송한다. 사망자 발생으로 신종플루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한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문제는 날씨가 서늘해지는 9~10월엔 신종플루가 크게 유행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신종플루에 얼마나 대비를 하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사망한 두 사람은 초기에 적절한 치료만 받았어도 사망은 피했을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일선 병원과 보건소에선 아직 신종플루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해주지 못하는 상태라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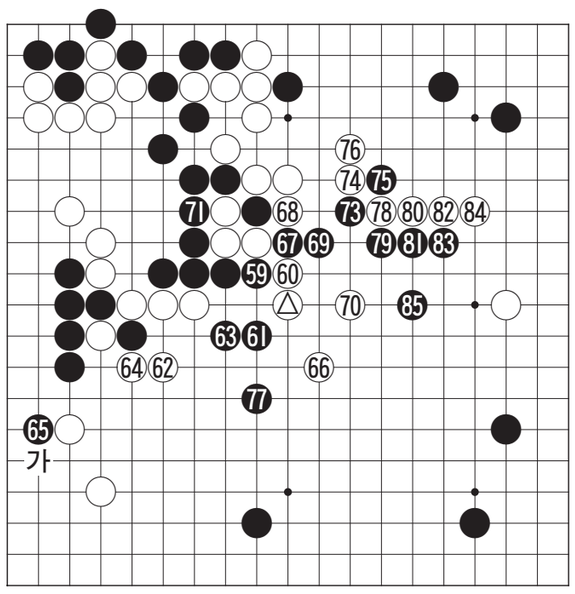
제작진은 "신종 플루가 과연 얼마나 위험하며, 예방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정부는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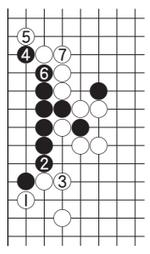
제18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장바둑대회

진흙탕 싸움

3회전 4국 4보 (59~85)

白 이정학 5단 〈변호사회〉 黑 김홍섭 5단 〈포스코〉




〈참고도〉

이정학 5단이 공격실패를 의식하고 강하게 백 Ⓐ로 씌워간 것은 기세였으나 이 수로는 60에 두어 안전하게 진출하는 것이 보다 확실했다.

흑 65에 대해 '가'로 젖히지 않고 바로 백 66으로 공격한 것은 흑이 '참고도'의 2부터 6까지를 선수하고 손을 빼서 중앙의 요처를 차지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천신만고 끝에 백의 포위망을 탈출한 김홍섭 5단은 이제 거꾸로 역습을 노리고 있다.백 66을 보더니 '심하지 않느냐'고 외치며 즉각 흑 67로 끊어 난전을 유도하고 있다.

사실 세력이라는 것은 약점이 없을 때 그 위력이 십분 배가된다. 흑이 이렇게 백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자 백의 세력처럼 보였던 중앙이 흑의 바람대로 진흙탕 싸움터로 변해버렸다.

백 78은 이렇게 끊어야 할 곳이며 흑 85까지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9일(음 6월 29일 丙申)

子 36년생 뜬구름을 잡고 있는 모습이니 현실로 돌아오라. 48년생 모든 지혜를 총 동원하면 해결된다. 60년생 밖은 시끄러워도 자신은 편안하다. 72년생 부부간 이해와 배려에 노력해야 한다. 84년생 부부간 언쟁 있으나 애정은 새롭다. 행운의 숫자 : 01,42

丑 37년생 산 넘어 산이니 준비를 단단히 하라. 49년생 상황은 어려워지지만 마음은 편하다. 61년생 새로운 인생 준비를 해보라. 73년생 새로운 일이 생기나 진행하기는 이르다. 85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5,45

寅 38년생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니 인내하라. 50년생 어려움은 닥쳐도 슬기롭게 헤쳐 나간다. 62년생 외출을 삼가 하면 액을 면한다. 74년생 있는 대로 잃을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처신해야 좋으리라. 행운의 숫자 : 06,36

卯 39년생 자식에게서 좋은 소식이 오니 행복하다. 51년생 자신 있게 행동하면 큰 이익이 생기리라. 63년생 자신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하라. 75년생 작은 병도 조심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8,38

辰 40년생 지나간 일이지만 다시 새겨봐야 하리라. 52년생 가능한 변화는 주지 않으면 이득이 생기고 행운이 따른다. 64년생 가족의 식구가 늘어나는 경사가 생길 수도 있다. 76년생 건강을 점검해보는 것이 좋으리라. 행운의 숫자 : 09,28

巳 41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라. 53년생 기다리던 사람에게서 일찍이 소식이 온다. 65년생 꿩 먹고 알 먹는 좋은 일이 생기나 결과는 반반이다. 77년생 늘 생각하고 있던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 준비하라. 행운의 숫자 : 21,44

午 42년생 독불장군은 없으니 상대방의 인격도 인정하면 좋으리라. 54년생 모았던 재물을 나눠가지면 복이 오리라. 66년생 밤길에 비단옷 입고 다닌 격이다. 78년생 부부간에 오해가 생길 일이 있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2,31

未 43년생 상전이 벽해가 되고 벽해가 상전되니 자신을 돌아보라. 55년생 서두르면 실패한다. 67년생 어려움은 닥쳐도 슬기롭게 헤쳐 나간다. 79년생 옛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길은 모색하라. 행운의 숫자 : 04,23

申 44년생 위장과 소화기계의 검진을 해보라. 56년생 의외의 소비가 생긴다. 68년생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에 빠진다. 80년생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서지만 헛일이다. 행운의 숫자 : 07,27

酉 45년생 일보전진을 위해 이보후퇴를 해도 늦지 않다. 57년생 자신을 모함 고자질하는 중간 사람이 보인다. 69년생 자신의 능력을 모함하는 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 81년생 옛 친구를 잊지 말고 옛 정을 찾아라. 행운의 숫자 : 10,40

戌 46년생 짧은 시간이라도 자신의 개발을 위해 투자하라. 58년생 친한 주변으로부터 모든 신뢰를 잃을 수니 정직하게 보내라. 70년생 하루 종일 바쁘지만 소득은 기대마라. 82년생 내린 결정을 점검을 해보라. 행운의 숫자 : 15,24

亥 47년생 꾸짖기보다는 조용하게 타이르면 순응한다. 59년생 눈치만 보다가는 명예에 먹칠하는 구설이 생긴다. 71년생 능력을 발휘하나 가슴은 답답하다. 83년생 다 된 밥에 코 빠질까 걱정이다. 행운의 숫자 : 22,33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굿모닝 잉글리쉬 <1372>

How do you want your burger?

버거를 어떻게 드실 건가요?

A : How do you want your burger?
B : Medium well.
A : Do you want French fries with that?
B : Sure.

A : 버거를 어떻게 드실 건가요?
B : 보통으로 익힌 것으로 주세요
A : 버거와 함께 후렌치 감자튀김을 드릴까요?
B : 예, 그렇게 해주세요.

* How do you want your burger?
= How do you want your burger cooked?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요우 니혼고 <1372>

食欲(しょくよく)もなくなってしまいました

식욕도 없어져 버렸어

A : 私は思(おも)ったより成績(せいせき)が悪(わる)かったです。
B : あまり氣(き)にしない方(ほう)がいいですよ。
A : なんだか、食欲(しょくよく)もなくなってしまいました。
B : いけませんね。食事(しょくじ)はきちんととった方(ほう)がんいですよ。

A : 나는 생각보다 성적이 나빴어요.
B : 별로 신경쓰지 않는 편이 좋아요.
A : 왠지 식욕도 없어져 버렸어.
B : 안돼요. 식사는 꼬박꼬박 하는 편이 좋아요

* 思(おも)ったより : 생각했던 것보다
* 氣(き)する : 걱정하다
* なんだか(=なんとなく) : 어쩐지, 왠지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449>

初恋

첫사랑

A : 你到現在还不能忘记你的初恋吗?
wǒ dào xiànzài hái bù néng wàngjì nǐ de chūlián ma
(나 아직도 시간속에 빠져 못 벗어나는 거 아니야?)
B : 哎, 别提了。
ài, biétí le
(아이, 말하지 마라)
A : 越想越痛苦, 别想了。
yuè xiǎng yuè tòngkǔ, bié xiǎng le
(생각할수록 괴로워, 하지 말아라)
B : 真是不堪回首啊。
zhēn shì kānhuíshǒu a
(진짜 뒤돌아보기 싫어)

A: 너 지금도 첫사랑을 못 잊고 있는거야?
B: 아, 그만해.
A: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괴로워. 그만 생각해.
B: 정말 그 시절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져.

越~越 (yuè ~ yuè) ~하면 할수록
不堪回首 (bùkānhuíshǒu) 아픈 지난날을 생각하면

〈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

한자 이야기 <1089>

白髮三千丈(백발삼천장)

흰 백, 터럭 발, 석 삼, 일천 천, 길 장

백발삼천장(白髮三千丈)은 흰 머리털의 길이가 삼천 길이란 뜻으로, 끊임없는 근심을 비유한다.

이 말은 당나라 시인 이백(李白)의 '추포가(秋浦歌)' 17수 중 한 수에서 유래하는데, '추포가'는 이백의 시로서는 보기 드물게 고독과 늙음의 슬픔을 읊은 시이다.

흰 머리털이 삼천 길(백발삼천장, 白髮三千丈)
수심으로 인하여 이처럼 길어졌네(연수사개장, 緣愁似箇長)
알 수 없구나 밝은 거울 속 모습이(부지명경리, 不知明鏡裏)
어디서 가을 서리를 얻었는고 (하처득추상, 何處得秋霜)

늙은 나이에 귀양에서 풀려나 안휘성의 추포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그 속에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수심 때문에 덧없이 늙어버린 노인의 모습이 있었을 뿐이다. 이에 그 슬픔을 연작시(連作詩)로 나타내는데, 특히 근심 쌓인 자신의 모습을 '백발의 길이가 삼천 길'이라고 과장스럽게 표현하였다. 이 말은 사람들에게 '끝없는 근심'의 비유로 널리 인용되었고, 요즈음에는 '과장된 것을 비웃는 말'로도 쓰이고 있다.

〈한예원(韓睿嫄)〉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